

「常綠樹」에 나타난 啓蒙意識의 性格考察

吳 養 鎬

<目

- I. 序 論
- II. 本 論
- 1. 農民啓蒙小說의 源源探索

次>

- 2. 1930年代와 危機意識
- 3. 「常綠樹」에 나타난 上昇指向意志
- III. 結 論

I. 序 論

문학연구를 10년 단위로 끊어서 논의한다는 것은 전적 편의적인 태도에 속할지 모른다. 그러나, 文學史의 시대구분을 문학의 역사라는 특수사의 각도에서 했다하더라도 거기에는 역시 미해결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현대문학의 경우 이런 시대구분이 전적 편의적으로만 처리되었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예를 들면, 1910년대의 新詩와 現代小說의 등장, 1920년대의 프로레타리아文學의 대두, 1930년대의 農民小說의 등장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런 문학의 類派가 각 연대의 초기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분명한 현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農民小說의 경우는 이 小說群의 등장을 1930년대 문학의 특징으로 잡는 것은 아주 타당한 것 같다.

그것은 1932년 4월에 「흙」이 발표되고 1933년에 李箕永의 「故鄉」, 같은 해에 프로총의 農民小說을 모은 작품집 「農民小說集」이 나오고, 1935년에 「常綠樹」, 「민동이 틀 때」 등이 연재되었으며(東亞日報) 安含光과 白鐵의 農民文學論이 1931년부터 문학의 쟁점으로 제기하고 나왔던 예에서 잘 드러난다. 주지하는 대로 沈熏의 「常綠樹」는 「흙」, 「민동이 틀 때」, 「黃昏의 노래」, 「永遠의 微笑」, 「臥龍洞」 등 일련의 小說과 맥을 같이하는 前期 農民小說로서 東亞日報 창간 15주년 기념 현상 소설에 당선되어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다.

1930년대에 와서 이와 같이 많은 農民啓蒙小說이 나타난 것은 문학자체의 변화과정에서 생성되는 것과 동시에 문학외적인 조건도 크게 작용된 듯하다. 곧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있었던 東亞, 朝鮮 양대신문의 농민계 풍운동과 농민문제를 집중으로 다루는 「農民」, 「農村月報」, 「農民生活」, 「農村文獻」 등 잡지의 등장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이런 잡지의 출현 이전에도 「開闢」誌 등이 농민운동을 1920년대부터 주창하고 나왔고, 개신교가 1925년부터 신자들을 동원하여 서울 근교에서 농민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¹⁾ 그렇지만 1930년대에 들어와 나타난 사회적 현상은 1920년대의 그것과 판이하다. 곧 세계적 大恐慌은 노골적인 파시즘을 초래했고, 大工場은 閉鎖되고 戰債모라토리움, 농촌의 貧困化, 失業者 洪水, 流離群激增으로 1930년대의 첫 해는 요약되기²⁾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현상과 함께 우리문학은 「흙」, 「常綠樹」 등 장편 前期農民小說이 나타나 1930년대 民族文學의 행방을 제시하자, 이어 李無影, 李石薰, 徐五峰, 崔仁俊 등이 동계의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바로 이를 이어 朴榮瀬, 金裕貞, 李泰俊, 李根榮, 金廷漢 등의 작가가 대거 농민과 농촌을 작품의 소재로 한 後期農民小說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런 현상은 분명히 1930년대 한국소설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와 같은 문학적 현상의 본질을 해명하기 위해서 본고는 우선 「常綠樹」를 중심으로 前期農民小說³⁾의 啓蒙意識의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本論

1. 農民啓蒙小說의 源源探索

한국의 前期農民小說(農民啓蒙小說)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19C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나로드니키즘(Narodnikism)운동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19C 러시아의 지식인들을 격동시켰던 나로드니키즘운동은

1) 描稿, 1930年代 啓蒙小說의 背景과 變화의 양상(語文學, 35집).

2) 宋影, 1931年の 朝鮮文壇 概觀(序論 참조).

3) 필자는 이 글에서 우선 「흙」, 「常綠樹」, 「故鄉」, 「연동이 틀 때」, 「黃昏의 노래」, 「永遠의 微笑」, 「卧龍洞」 등 농민계몽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군을 前期農民小說(農民啓蒙小說)이라 칭하고, 그 이후에 나타난 박영준, 김우정, 이태준, 이무영, 김정한 등의 작품을 後期農民小說이라 한다(이 두 작품군의 차이점은 稿을 달리하여 논술함).

나로드(Narod; 民衆, 農民)와 미르(Mir; 農民自治團體)에 기초를 두고 비공업적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신봉하면 대중계몽운동을 말한다. 이것은 케르첸에 의하여 선창되고 톨스토이, 도스도옙스키, 루르게네프 등 당시 러시아의 일급 작가들의 지지를 얻어 대대적인 문화운동으로 발전하였다.⁴⁾ 예를 들면 루르게네프의 「사냥꾼의 手記」(1852)에 수록된 여러 단편은 당시 러시아에서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었던 農奴解放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고,⁵⁾ 그의 「루우딘」(1856), 「貴族의 보금자리」(1858), 「처녀지」 등은 農奴制度와 신구사상의 갈등을 주제로 한 계몽적 성격을 면 소설이다. 다시 말해서 인민주의의 신봉자들이 개인을 신과 도덕과 귀족제도의 종속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운동, 즉 農노제도에 대한 반성이 바로 나로드니키즘운동의 주조였다. 그런데, 이런 인권 운동에 제일 앞장선 계층이 당시의 知識人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작가들이 선봉이었다.

도스도옙스키는 農노제도란 부도덕과 전근대적인 것의 상징이며, 참다운 슬라브족의 열은 러시아농민에 있다고 믿고 농노해방운동에 참가했다. 그리하여 이것으로 투옥되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죽음의 집의 記錄」을 썼다. 이 작품이 나로드니키운동을 주제로 다룬 최초의 문학작품이다.

톨스토이의 경우에 있어서 예술의 기능은 특수한 사회적 이상을 인간정신에 보급시키고 실현시킨다는 논리에 서 있다. 따라서 그의 예술론의 입장은 인간을 전체적 기독교 동포에의 실현이 문학의 목적이란 명제위에서 출발한다.⁶⁾ 그는 감상주의적 소설과 특히 불란서의 상징주의 詩와 같은 자기중심적이며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식적인 음악과 회화가 세계의 욕망과 감정에 봉사해 왔다고는 믿지 않고 있다. 그가 믿기에 '예술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外的인 표식을 사용하여 자기가 겪어온 감정을 타인에게 전해 주고 그 타인은 이 감정에 감염되어 그것을 경험하는 인간의 활동'⁷⁾이라고 보고 가장 위대한 예술은 언제나 가장 광범한 군중에게 호소하며 가장 높은 이상을 그 주제로 삼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그 이상을 문학작품으로 승화시키기에 일생을 바쳤고, 또 몸소 그 이상을 실현하였다. 즉 그의 전 농토를 농노들에게 분배하고 그들을 해방시켰다. 이것은 1861년에 있었던 러시아의 農奴解放이란 정치적 사실때문이 아니라, 어릴

4) 金大均, 近代文藝思潮史(正音社, 1948), p. 244.

5) 洪曉民, 러시아文學史(東邦文化社, 1947), p. 69.

6) S. 모음, 世界 10大小說과 作家(洪思重 역, 三星文庫, 41), 10, 11章 참조.

7) 톨스토이, 藝術論(金秉喆 역, 乙酉文化社, 1969), p. 76.

때부터 투쏘를 사숙하고, 기독교적 인간평등사상을 절대 신봉한 틀스토이의 자발적 행위이다. 러시아의 나로드니키즘운동은 이와 같이 일급 작가의 지지와 사상이 바탕을 이룬 위에 러시아를 이끄는 한理念으로 성숙되고, 이것이 文學으로 구현되었다. 다시 말해서 도스도옙스키와 틀스토이에 의해 主導되던 러시아의 농노해방운동(Narodnikism)은 지식인이 人民에 대한 부채를 깊는다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도스도옙스키가 말하듯 가장 학대받고 가장 비참한 사람도 역시 인간이며 兄弟라는 휴머니즘의 관점이 러시아의 브·나로드(B. Hapo A)운동의 본질이다. 전보적인 비평의 권위였던 미하이로프스키는 <틀스토이의 右手와 左手>란 글에서 그를 디모크라티 나로드크로서 평가했고, 틀스토이 자신은 부유한 생활파는 달리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여 자살까지 시도했다가 모스크바의 빈민窟을 돌아보고서 그 비참함에 심한 충격을 받고, 점점 명확한 틀스토이주의를 형성해 갔다. 한편 나로드니크의 大運動을 목전에 두고 이 작가는 ‘自然으로 돌아가라’란 루소주의를 통해서 러시아의 大地가 지닌 의미를 民衆들에게 가르쳐주려고 했다. 그는 농민이 러시아의 大地에서 거두어들인 수확물을 제시하면서 지식인들은 農民을 蠶아야 한다고 외쳤다. 1870년대의 러시아 나로드니키는 西歐(불란서)의 영향하에서 일어났으나, 1880년대의 틀스토이가 중심이 된 나로드니키운동은 러시아의 대지를 바탕으로 하여 그思想을 굳혀갔다. 말하자면 불란서로부터 수입된 룽소적 나로드니키즘은 차차 세력을 잃고, 틀스토이주의를 주축으로 한 러시아의 나로드니키즘이 전 러시아의 民衆과 農民을 계몽하는 대대적인 운동으로 발전해 갔던 것이다.

韓國의 農民啓蒙小說은 이런 틀스토이적 인도주의에서 發源되었다. 이점은 李光洙의 「흙」에서 우선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李光洙의 文學觀이 틀스토이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지금 새로이 예증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의 작품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고 많이 논증도 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의 夏期學生 브·나로드운동이 틀스토이의 나로드니키운동과 연관을 지니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우선 ‘Hapo A’란 말은 民衆 또는 農民이란 뜻이고, ‘B. Hapo A’란 民衆속으로! 農民속으로! 란 의미의 러시아어이다. 곧 李光洙가 당시 東亞日報 편집국장으로 이 일을 主導하면서 사용한 ‘B. Hapo A’란 용어는 틀스토이안들이 썼던 브·나로드(B. Hapo A)란 말 바로 그것인 것이다.⁸⁾

1931년 7월 16일(木) 처음으로 ‘學生 夏期 브·나로드 運動’이란 6단기사가 社告로 나오면 날, 東亞日報의 社說은 여름 휴가를 떠나는 모든 학생들은 농어촌으로 들어가 계몽운동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런 농어촌에로의 귀향의 주창은 러시아가 1869년에서 1872년 사이 4년간 전개했던 ‘브·나로드 運動’과 동일한 내용과 발상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李光洙의 농민계몽사상이 툴스토이의 그것에서 발원되고 있다는 것을 「흙」과 툴스토이의 農民啓蒙小說「地主의 아침」에서 주인공들이 귀농하게 되는 동일한 동기같은 데서 우선 드러난다. 「地主의 아침」의 주인공 네프로도프는 大學 3년을 중퇴하고 농민계몽운동을 하기 위해 농촌으로 들어가면서 ‘農奴를 행복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나도 한 선량한 백성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이것은 「흙」의 허 송이 ‘농민속으로 가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자. 가서 가장 가난한 농민이 먹는 것을 먹고, 가장 가난한 농민이 입는 것을 입고, 가장 가난한 농민이 사는 집에서 살면서 가난한 농민의 심부름을 하여주자’는 귀농 모티브와 꼭 같다. 知識人이 농민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부채감이 툴스토이에게는 농노해방 운동에 뛰어들게 했고, 李光洙에게는 귀농운동에 뛰어들게 했다. 다만 툴스토이는 질체로 자신이 카잔대학을 중퇴하고(1847년) 야스나야 뽐리나야 領地로 귀농했다면, 李光洙는 論說과 文學作品을 통해 지식인들을 유도했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툴스토이가 農奴解放을 실현하려는 더 큰 휴머니즘의 세계로 나아갔다면, 李光洙는 이런 농민계몽을 통해 民族의 힘을 키워 獨立과 自主의 기틀을 세우려는 民族文學으로 발전시킨 점이다. 이러한 두 文人의 사상이 理想的 휴머니즘에 가까이 가 있고, 그 이상적 휴머니즘의 실현이 농민과 같은 불쌍한 민중때문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학관은 「흙」을 이어 나타난 李無影의 「먼동이 틀 때」(‘35), 沈熏의 「常綠樹」(‘35)와 「永遠의 微笑」(‘33), 李石薰의 「黃昏의 노래」(‘33), 徐五峰의 「臥龍洞」(‘34) 등의 주인공들이 모두 지식인들로서 자신들의 개인적 영달을 버리고 농촌으로 들어가 농민을 위해 희생한다는 줄거리에서 더욱 확연히 들어난다. 즉 「흙」의 허 송은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면 부유

8) 東亞日報, 1931년 7월 16일(木) 三面에 발표된 〈第1回 學生 夏期 브·나로드 運動〉이란 社告에서 ‘브·나로드’란 러시아말로 농민속으로! 민중속으로! 만 의미라고 명시하고 있다.

9) 東亞日報, 1931년 7월 16일(木)字 社說 〈奉公의 精神을 함양하라〉 참조.

한 생활이 보장되며, 서울에서의 행복한 삶이 약속된다. 그러나, 그는 그런 富와 지위와 행복도 포기하고 농민계몽을 위하여 살여울로 들어가며, 「常綠樹」의 박동혁은 농민계몽이 사회의 어려운 문제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학업을 끝내자 다시 귀농한다. 또 「면동이 틀 때」의 일도가 출판사를 그만 두고 自由學院으로 가는 것이다, 도회에서의 두의미한 생활을 청산하고 S섬으로 들어가 가난하고 봉매한 어민들을 계몽하고 어민이 되겠다는 「黃昏의 노래」의 정 철도 이런 인도주의적 농민계몽사상의 구현이라 하겠다.

이렇게 볼 때, 前期農民小說, 즉 農民啓蒙小說들은 모두 지식인들이 부지하고 가난한 농민에게 베푸는 利他的 계몽운동으로 기독교적 휴머니즘 사상이 밀바탕이 된 툴스토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 李光洙가 나의 예술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툴스토이선생이었다고 출회하면서, 툴스토이를 정당하게 이해하려면 「내 종교」, 「하늘나라는 내 안에 있다」, 「藝術論」을 열독할 것이라는 직접적인 고백¹⁰⁾은 오히려 군말이 된다.

沈熏의 「常綠樹」는 李光洙의 이러한 인도주의적 예술관에 입각한 農民啓蒙의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위기의식과 불안의식이 팽배해가던 1930년대에 발표되어 문제가 되었던 작품이다. 특히 이 소설에 内包化(Connotation) 된 민족적 색채, 黯음의 이미지로 상징되고 있는 작품의 분위기는 당시의 사회일반의 성격과 대비고찰해볼만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2. 1930學代와 危機意識

白鐵은 그의 「朝鮮新文學思潮史」에서 1930年代를 위기의 시대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시대의 특성을 말하고 있다.

一九三二, 三年을 前後하여 世界 各國의 문단에는 不安思潮라는 世紀的인思潮가 全面적으로 癥來해온 시대이다. 그리하여 정신의 위기, 문화의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絶叫되었다. 詩의 滅亡이다! 文化的 위기이다! 고. 그러나, 이 세계문화의 위기는 결코 우연하게 온 것은 아니었다. 그만한 현실적 條件이 있어 초래된 세기적인 사실이었다. 그것은 結局 근대 자본주의의 말기적인 특징이 문화면 우에 나타난 혼상인 동시에 세계 경제공황의深化와 제국주의적인 정치의 위기, 第二次戰爭의 위기를 배경에 두고 生起된 혼상이었던 것이다.……(中)

10) 李光洙, 杜鎬과 나(李光洙全集, 16, 三中堂, 1966), p. 414.

略)……제 1 차 대전 이후에 약간의 안정기를 보였던 자본주의 諸國家의 경제, 1926년의 美國의 번영, 1927년의 歐洲列強의 小康狀態, 그리고 1921년에 공황이 심했던 영국이 27년에는 일시 안정을 보이던 것이 「1929년 이래 세계공황의 폭풍에 휩쓸리어서 경리할 바를 모르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더욱深化되어 가고 있다.」¹¹⁾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경우, 1931년의 滿洲事變으로 日本 제국주의의 대륙침략이 노골화되어가던 정치적 경화현상과 유럽에서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파시즘의 대두가 제 1 차 세계대전 직전의 경제와 유사한 관계로 국제적 분위기를 물고가던 사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정치적 불안이 1929년 이래의 세계적 대공황과 거의 맞물고 나타남으로써 위기의식은 더욱 심각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文學은 문학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문학 외적인 존재의 반영일 수도 있다. 우리가 굳이 순수문학이니 참여문학이니를 따지지 않더라도, 文學이 삶을 불이고 있는 社會가 불안하면 文學이 자극을 받지 않을 수 없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文學이 받는 이러한 반응은 1930년대 초반부터 심각하게 제기된다.

1934년 新東亞에 발표된 蔡萬植의 「레디메이드 人生」은 文學이 받고 있던 당대의 이런 충격이 민감하게 굴절되고 있는 좋은 예이다.

이 小說의 주인공 P는 실천적인 지식인이 되고자 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그 사회의 어디에도 발을 붙이지 못한 '되다가 찌부려진 채스터기'로 전락하여 직업을 구결하는 직업동냥의 거지가 되어 나서 보지만 끝내 직장은 얻지 못한다. 高等遊民이 된 P는 결국 '굶어죽지는 않았지만 야위어 갈' 수밖에 없는 형세에 몰려있을 때, 시골에서 아들이 올라오자 P는 아들과 궁상스런 자취생활을 시작한다.

종로에서 풍로니 남비니 양재기니 술걸이니 무어니 해서 살립 나부랑이를 간단하게 장만하여 가지고 올라오는 길에 전에 잡지사에 있을 때 알은 ××인 채소의 문신과장을 찾아갔다.

뭘 급도 일업고 다만 일만 가르쳐 주면 그만이니 어린아이 하나를 써달라고 했다.

……(21 행 생략)……

인 채소 일 배우는 것도 공부지.

11) 白鐵, 朝鮮新文學思潮史(現代篇)(白楊堂, 1949), pp. 188~189.

그건 그렇지만 학교에 보내야지.

학교에 보낼 처지가 못되고 또 보낸댔자 사람 구실도 못할 테니까…….

거참 모를 일이오. 우리 같은 놈은 이 짓을 해 가면서도 자식을 공부시키느라 고애를 쓰는데 되려 공부시킬 줄 아는 양반이 보통학교도 아니 마친 자제를 공장엔 보내요?

내가 학교 공부를 해본 나머지 그게 못 쓰겠으니까 자식은 딴 공부를 시키겠다는 것이지요.¹²⁾

전문학교나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하는 현실인지라 P는 9 살짜리 아들을 보통학교도 졸업시키지 않고 인쇄소 직공으로 보내고 만다. ‘레디메이드 人生이 비로소 겨우 임자를 만나 팔리었구나’라는 이 小說의 結句에는 그렇게 되어가는 당시의 도시생활을 풍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P와 같은 주인공을 ‘직업동냥의 구결’ ‘개밥의 도토리’ ‘초상집의 주인 없는 개’ 따위의 말로 비유하고 있는 작품의 밑바닥에는 이런 社會의 모순을 지적하려는 비판적 리얼리즘 정신과 구별되는 다른 하나의 비판의식도 깔려있는 듯하다. 즉 知識人이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를 P는 비양거리고 불평만하면서 점점 더 깊은 가난과 소외지대로 전락해 간다. 그가 어느 신문사에 취직부탁을 하려갔을 때, 그 신문사의 사장이 농촌으로 들어가 농민을 계몽하든가, 마음맞는 사람이 몇이 모여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을 만들면 취직을 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말을 하자 그는 속으로 비웃는다. 그러면 우선 누가 돈을 대주고, 우선 밥을 먹여줘야 계몽도 하고 일도 할 게 아니냐고 반문한다. 말하자면 작가는 대학을 나온 아버지가 자기 자식 하나를 보통학교도 졸업시키지 못하고, 인쇄소 직공으로 팔아넘기는 모순된 사회구조를 드러내려는 의도와 함께, ‘번들 번들 놀면서’ 자조적인 자기비하감에 빠져버린 지식 청년들의 생활도 비판하려는 의미를 이 小說은 함께 보여주려 하고 있다.

지식인이 도시에서 취직을 못하고 놀고 있는 것도 1930년대의 현실이지만, 그런 지식인이 農村 등으로 나아가 民族이나 그들의 장래를 능동적으로 개척하지 않으려는 태도도 現實이라는 관점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숨은 의미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지금 조선 농촌에서는 문맹퇴치니 생활개선이니 합네하고 손꼽아야 대학이나 전문학교 졸업생들이 모여 오는 것을 그다지 반겨하기는커녕 머

12) 蔡萬植, 레디메이드人生(現代韓國短篇文學全集 18, 文元閣, 1974), pp. 34~35.

뭣 살을 앓을 것입니다. 농민이 우매하다든지 문화가 뒤떨어졌다든지 또 생활이 비참한 것의 근본 원인이 기역 나온을 모른다든가 생활개선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조선의 지식 청년들이 모두 그런 인도주의자가 되어집니까?

「되면 되지 안될 건 두어야.」

「그건 인도주의란 그것이 한 개 공상이니까 그렇겠지요.」

「허허…… 그러면 P군은 ◇◇주의 찬가?」

「되다가 끼부리진 꿔스러깁니다. 철저한 ××주의 차이면 이렇게 전생님한테 와서 취직운동도 아니합니다.」

「듯식, 그렇게 과격한 사상으로 거울이 써야 쓰나……. 정 농촌으로 돌아가기가 쉽거든 서울서라도 몇 사람 마음 맞는 사람이 도어서 무흔 일을——조국에 선문이 모자라니 선문을 하나 경영하든지, 또 조그맣게 하자면 잡지 같은 것도 좋고…… 그러면 취직운동 하는 것보단 훨씬 낫잖은가?」

「좋은 줄이야 압니다만 누가 돈을 내듭니까?」¹³⁾

위의 인용문에서 추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K사장의 말은 논리가 서 있고 이치에 맞다고 한다면, P의 말은 비논리적이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인상이다. 도시의 현상이 이러 이터하니 농촌으로 가라는 말에 P는 농촌은 우리와 같은 지식인을 원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왜 원하지 않으며 왜 자신은 도회에 머물려 있어야 하는가를 P는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K사장의 말을 시종 비양거리며 빙아들이는 느낌을 주고 있다. P는 비틀어져 있고, 자기 비하감에 빠져있고, 안일한 도회생활에 젖어있다.

작가 체반석은 이 小說에서 사회의 도준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30년대 知識人們의 방향을 잃은 무기력한 생활도 보여주려 하고 있다. 「레디메이드 人生」을 주인공 P의 관점에서만 보고 그의 좌절과 자조와 전략을 도시사회학적인 각도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蔡萬植과 같은 철저한 리얼리스트의 문학세계를 고착시키거나 경화시킬 위험이 있다. 그것은 이 소설의 導入部에서 제기되고 있는 知識青年의 歸農問題를 다루고 있는 작가의 톤이 상당히 무겁게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1930년대의 農民啓蒙小說을 단순히 일부 작가들의 관점적 논리가 民衆의 작성만을 축구하고 나온 이념파악의 계몽문학으로 평가

13) 蔡萬植, 레디메이드 人生(現代韓國短篇文學全集 A-18, 文元閣, 1974), p. 15.

한다는 것은 매우 독단적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1930년대를 白鐵 교수의 지적대로 不安의 시대, 危機의 시대로 본다면 農民啓蒙運動과 農民啓蒙小說이 대거 함께 일어났던 1930년대 초반은 韓國現代小說史에 있어서 관념적 논리의 계몽의식과 각성된 농민의식이 맞섰던 시기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文學이란 무릇 그 시대적 특질과 사회적 의의를 충실히 기록해서 그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야만 작품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文學社會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¹⁴⁾ 이런 점에서 農民小說이 1930년대에 와서 비로소 활기를 띠고 창작되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조출하게 다루어졌던 農民과 農村問題에 작가들이 시대적 특질과 사회적 의의를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이런 시대상황의 변화는 당대 사람들에게 民族感情을 자극하는 반응으로 나타났고, 文學은 사회의 이런 변화를 형상화함으로써 우리민족이 나아갈方向을 제시해주는 藝術行爲로까지 굴절(Refraction)시킨 것이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前期農民小說 時代, 곧 農民啓蒙小說時代는 앞에서 논의한 위기의 시대에 대응해서 문학이 나타난 주목할만한 民族文學의 시대라 하겠다.

3. 「常綠樹」에 나타난 上昇指向 意志

「常綠樹」에는 여자 주인공 蔡永信이 청석물에 와서 예배당을 빌어 한글 강습을 하는데, 주제소에서 강습소의 일을 제재하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그래서 영신은 글을 배우려 오는 아이들의 일부를 부득이 쫓아내고 수업을 하게 된다. 영신이 교과서로 쓰는 農民讀本을 끊고 들고 ‘글 모으는 병’을 아이들에게 외우게 하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 영신은 다음 인용문과 같은 장면을 목도하고 눈시울을 적신다.

예배당을 두른 얇으막한 담에는 쫓겨나간 아이들이 머리만 내밀고 쭈욱 애달여서 남 안을 넘겨다 보고 있지 않은가. 고목이 된 뽕나무 가지에 닥지 탁지 열린 것은 틀림없는 사람의 열매다. 그 중에도 키가 작은 계집애들은 나무에는 가이 오르지를 못하고 땅바닥에 가 주저앉아서 훌쩍거리고 읊기만 한다.

영신은 창문을 말끔 열어 제쳤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칠판을 떼어 달 밖에 서도 볼 수 있는 창 앞탁에다가 버터이 놓고 아래와 같이 키다랗게 썼다.

14) 趙東一, 文學研究方法(지식산업사, 1980), pp. 184~185.

누구든지 학교로 오너라.

배우고야 무슨 일이든지 한다.

나무에 오르고 담장에 매어 달린 아이들은 일제히 입을 열어 목구멍이 젖어져
라고 그 독분의 구질을 바라다보고 읽는다. 바락 바락 지르는 그 소리는 글을
외는 것이 아니라 이찌 들으면 누구에게 말악을 하는 것 같다.¹⁵⁾

이 인용문의 이해를 돋기 위해서 「常綠樹」의 주인공이 당시의 실재 인
물 沈載英과 崔容信을 모델로 하고 있고, 작가 자신이 어린 학생으로 3·1
運動에 가담하여 감옥을 살고 나왔다¹⁶⁾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주변적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뽕나무와 아이들이 어울
려 이루고 있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위의 인용문과 같은 예
문만으로도 독자들은 큰 감동을 받는다.

쫓겨나서도 글을 배우겠다고 담장을 타고 뽕나무에 올라와 쫓겨나지 않은
아이들의 글공부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과, ‘누구든지 학교
로 오너라’고 외치면서도 글 배우려 온 아이들을 쫓아 낸 선생, 공부를
담 밖에서도 할 수 있게 창 앞턱에 칠판을 걸어두고, ‘배우고야 무슨 일
이든지 한다’고 외치는 장면은 도시 중심의 植民地 文化가 판을 치던 시
기에 좀처럼 기대하기 힘든 上昇指向의 民族意志를 형상화한 감동적인 장
면으로 탁아선다. 주인공 朴東赫과 蔡永信이 서로 깊은 애정으로 빠져들
면서도 奉公的 사명감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는 뒤로 미루면서 희생적으로
농민계몽을 하는 출거리와 이런 장면은, 이 작품의 결말에 常綠樹로 상징
되고 있는 黎庶의 上昇 이미지와 연결되면서 이 소설이 민족수난의 극복
의지를 얼마나 자발적 민중의지로 문제삼고 있는가를 둘러서 암시한다.

한글 강습의 교재로 쓰이고 있는 農民讀本이 당시 농촌계몽의 실제 교
재였고 이 교재가 농촌에까지 널리 보급되어 읽혔다는 사실은 「常綠樹」의
농민계몽 문제가 실제에 있어서 당시 사회의 충실한 民衆意志의 반영이었
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A) 누구던지 학교로 나오라.

배우고야 무슨 일이던지 한다.

글 모르는 자는 눈먼 자이다.

글을 배워야 눈을 뜬다.

15) 沈熏, 常綠樹(沈熏文學全集 I, 探究堂, 1966), p. 229.

16) 尹石重, 故鄉에서의 客死(註 15와 같은 책), p. 579.

지식은 돈보다 귀하다.
부자란하면 얻는다.
무식한 사람은 어둡다.
이 둘으면 어리석다.¹⁷⁾

이려한 당시 농민계몽의 실상의 반영은 이 小說의 대단원에 와서 더욱 선명히 들어난다.

(B) 동혁이가 동리 어구로 들어서자 맨 먼저 눈에 띠는 것은 불그스름하게 물들은 저녁하늘을 배경삼고 언덕위에 우뚝 우뚝 서 있는 천나무와 소나무와 향나무들이었다. 회관이 낙성되던 날, 그 기쁨을 영원히 기록하기 위해서 회원들과 함께 파다 심은 상록수들이 키돋움을 하여 동혁을 반기는듯…….

「오오 너희들은 기나긴 겨울에 그 눈바람을 빼고도 성성하구나! 저렇게 푸르구나!」

……(8 행 생략)……

그의 눈에는 회관 앞 마당에 전보다 몇 풀질이나 빽빽하게 모여선 회원들이 팔다리를 벌렸다 오드렸다 하며 체조를 하는 광경이 보였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눈을 끔뻑하고 감았다가 떴다. 이번에는 훤히게 너진 벌판에 들이 가득히 잡혔는데 회관이 오리떼처럼 눈바닥에 가 하얗것 같여서 일제히 이앙가를 부르며 고를 씹는 장면이 망원경을 대고 보는듯이 지쳐에서 보였다.

동혁은 줄지에 알게 가 시원해졌다. 고향의 산천이 새삼스라이 아름다워 보여서 ……(2 행 생략)……

앞으로 가지 가지 세로이 활동할 생각을 하며 전자니, 그는 제풀에 어랫마를이 났다. 회관 근처까지 다가온 동혁은 누가 등 뒤에서

「엇 둘! 엇 둘!」

하고 구령을 불러주는 것처럼 다리를 쭉 쭉 내뻗었다.

상록수 그늘을 향하여 뚜벅 뚜벅 걸었다.¹⁸⁾

(C) 세상이 칼칼터니 밝은해 오르련다.

밝고도 밝은 그빛 누구란 설마던가
잠자는 자 잡을 깨고 눈먼 자 눈을 떠라
부즈런이 일을 하여 살길을 닦아보세
풀집고 조은살림 눈앞에 갓갑도다.¹⁹⁾

17) 李景煥, 農民讀本(全朝鮮農民社, 1930, 京城), p. 8.

18) 沈熙, 앞의 책, pp. 377~378.

19) 李景煥, 앞의 책, p. 10.

인용된 글 (A)와 (C)의 일부는 이 小說의 여러 곳에 인용되고 있고, (C)는 이 소설의 대단원 (B)와 아주 유사한 분위기와 발상 (Inspiration)에 서 있다. 同志이자 愛人이던 여주인공 채영신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주인공 박동혁이 슬픔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려는 굳은 의지가 常綠樹로 상징화되면서 밝고 환한 상승지향적 분위기로 결말이 처리되고 있는 점은 '세상이 카캄터니 밝은 해 오르련다' '즐겁고 조은 살림 눈앞에 갖갑도다'고 노래하고 있는 글 (C)의 主題 바로 그것이다.

1930년대의 도시현실을 克明하게 보여주려는 蔡萬植이 「해디메이드 人生」에서 제기했던 知識人的 활로, 農民啓蒙이 '조선의 지식청년이 그런 인도주의자가 되어지지 않고' '농민은 손끝이 하얀 대학이나 전문학교 졸업생들이 모여 오는 것을 그다지 반겨하기는커녕 머릿살을 얇기'에 농촌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자조감에 빠져들던 주인공의 암담함과는 전혀 다른, 밝고 열리는 분위기를 우리는 여기서 대한다. 그렇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학교를 나온 사람이 바보처럼 농촌에 들어간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반문한다면 本論의 (1), (2)項에서 논술했듯이 1930년대가 農民의 문제, 農村의 문제로 들끓었고 奉公精神과 民族主義가 폭배했던 시대란 것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가 된다. 당시 青年들의 우상이 되어있던 島山천생이나, 尹奉吉의사 같은 이가 理想農村建設을 부르짖고 있었고, 理想村을 건설하려는 지식청년의 일생을 다룬 소설이 발표되기도 하고,²⁰⁾ 흥이 발표되던 1932년 東亞日報의 「夏期學生 브·나로드運動」에서는 2,724 명의 강습대원과 41,153 명의 강습생을 내었다²¹⁾ 는 당시의 사정은 마땅히 이런 前期農民小說의 의미와 결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勞農群衆의 文盲를 退治한다함이 新朝鮮建設의 基礎工事²²⁾이고, '科學的 지식을 함양할만이 농촌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²³⁾ 선각자들과 차진해서 전국의 방방곡곡으로 내려가 여름방학을 보내던 학생들의 열성적인 계몽활동파도 연관지워져야 할 것이다.

20) 張時華, 村(理想村, 1934년, 京城).

21) 機稿, 1930年代 啓蒙小說의 背景과 변화의 양상(語文學, 35집) 참조.

22) 李晟煥, 앞의 책, 序文.

23) 崔鉉培, 朝鮮民族更生의 道(1930年版 翻刻本, 正音社, 1962). 최현대선생은 이 저서에서 民族的 질병의 진찰, 민족적 쇠약증의 원인, 民族的 更生의 原理, 民族의 更生의 노력을 논하면서 특히 민족적 생기의 진작, 민족적 이상수립, 민족의 시대적 이상을 역설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단순한 사회적 계몽운동이 아니라, 文學作品으로 확실하게 현실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학교 학생으로서 농민계몽에 열중하다가 퇴학되는 여주인공 蔡永信의 행동을 통해 더 고찰해 보자.

채영신은 농민계몽을 위한 일념에서 기독교 청년회 농촌사업부 특파원 격으로 두배 산풀 청석골에 내려온다. 그러나 박동혁파의 애정이 깊어가면서,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딸로서의 보답을 하지 못함으로써 갈등에 빠져들고 고민하게 된다. 박동혁에 대한 애정은 동지애적인 관계를 넘어서異性的 결합으로 나아가기에 아름다운 고통으로 참을 수 있지만, 肉親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자식으로서 불효를 하고 있다는 자책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일 수 있다. 그러나 永信은 육친에 대한 애정이나 이성에 대한 애정, 그 어느 것도 조국애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신념이 남달리 강하기에 그런 고통을 잘 이겨낸다.

‘돈을 모아서 저 한 사람의 생활안정이나 피하려는 정근씨의 이기주의가 싫어’ 정혼을 했던 사람(金庭根)과 파혼을 선언한 영신은 어머니에 대한 애정도,

「나는 물론 어머니 한 분의 딸 노릇만을 할 수가 없다우. 알아들으시겠수? 어머니 한 분한테 불효하지만, 내 딸엔 수천 수만이나 되는 장래의 어머니들을 위하여 일을 하려고 이 한 몸을 바쳤으니까요.」

라는 야멸찬 말로 그 감정을 안으로 삼키고 만다. 이러한 애정판이 지나친 理想主義로 보여 설득력을 잃을 것 같지만, 동력을 중심으로 한 한곡리의 이야기와 영신을 중심으로 한 청석골의 이야기——농민계몽에서 일어나는 현장감 있는 삽화와, 특히 이 두 남녀 사이에 오고 가는 신선한 사랑의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장면 중심의 사건이 복합구성을 이룸으로써 독자들은 연애소설로서의 흥미와 농민계몽소설로서의 민족애적 감동을 함께 느끼는 재미를 맛본다.

언제 삼개년 계획만 더 세우고 노력하면 피차에 일터가 단단히 짚히겠지요. 후진들한테 일을 맡겨도 안심이 될만치 기초가 든든히 선 뒤에 우리는 결혼을 하십시다. 그리고는 될 수 있는대로 좀 더 공부를 하면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십시다 하더니 잠시 뜻을 들이다가 「영신씨! 그 때까지 기다려 주실테지요?』
……(중략)……

「삼 년 아니라, 삼십 년이태두……」

하는데 별안간 영신의 입술은 말 끝을 맷을 자유를 잃었다.

지새려는 봄 밤, 잠 깊이 듣 바다의 얼굴을 휩쓰는 셀 sắt한 바람이 쏴—하고 또 쏴—하고 타는듯한 두 사람의 가슴에 벽차게 안긴다.

朴東赫과 蔡永信이 사랑을 약속하는 장면이다. 이 거룩한 사랑의 약속이 ‘봄 밤 바닷가’에서 이루어진다. 육감적 정열과 생명을 상징하는 바닷가에서 뜨거운 생명이 맞부딪히는 이려한 표사는 이 작품이 지식인의 동민계몽이란 이상주의적 주제에 상당한 리얼리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지새려는 봄 밤, 잠 깊이 듣 바다’란 압축된 문장 속에서 우리는 두 인물이 하나의 자연인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발견한다. 박동혁과 채영신의 관계가 同志愛的 관계로 처리된다고 가정해 보라. 이 소설이 얼마나 판념의 유희에 머물고 말 것인가. 따라서 이런 신선하고도 육감적인 사랑행위가 절제된 감상의 한계에서 처리되고 있는 구성은 「寄」의 허 숭파 유순, 「故鄉」의 김희준과 안갑숙 등의 관계가 끝까지 이상적 애정관계로 처리되는 면과 다르다. 곧 이 작품이 다같은 前期 農民小說群이면서도 그런 작품이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생동하는 인간상을 이룩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박동혁과 채영신이 작가의 이념에 의해 조종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위해 민족적 애정은 기한부로 처리할 수 있는 행위와 같은 폐서 재차 확인된다. 다시 말해서 「常綠樹」는 「寄」이나 「故鄉」과 같이 당시의 하향식 계몽사상의 즉각적 반영이 아니라, 불안과 위기로 요약되는 1930년대에 뿌리를 내리려는 지식인상을 祖國愛와 本能的 애정을 일치시킴으로써 현실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런 점은 일부 비평가들이 「상록수」가 실현성 없는 이상론의 표백이라는 투로²⁴⁾ 부정하면서 이를 작품이 日本이 들고 나왔던 농촌자력 경쟁운동과 연관지워서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데서도 방증된다.

동혁, 영신, 전배는 ‘요새 한참 떠들고 있는 자력갱생 운동을 비판할’²⁵⁾ 뿐 아니라, 박동혁은 그러한 관제농촌 잘살기 운동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비판을 한다. 이것은 박동혁이 농민운동을 벌리고 있는 한곡리에도 농촌진흥회가 설립되고 그 회장에 면협의원이요 금융조합 감사로 학교비 평의원인 고리대금업자 강기천이 회장에 당선되고, 면장이 농촌진흥회의 설립취지를 설명하고 났을 때, 억지로 서기가 된 박동혁은 동네 사람들을

24) 金治洙, 『농촌소설론(農民文學論, 온누리社, 1983), pp. 40~41 참조.

25) 沈熏, 『심훈전집』 I, p. 197.

향해 이런 말을 한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동네에도 진홍회가 생긴 까닭과, 진홍회란 무엇을 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면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신 것을 들으셨으니까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남이 시키는대로 덮어 놓고 복종을 하는 것보다 우리들의 일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지 말고 자발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력생생(自力更生)입니다!」²⁶⁾

이러한 동혁의 말은 農民運動이 타율적 판제운동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말이자, 자신이나 동우회원들이 하고 있는 농민운동이 결코 그런 게 아니며 그런 강제적 운동과 같은 것으로 평가될 성질이 아닌 자발적인 것이란 말이다. 강기천을 농촌진홍회 회장으로 뽑으려 했을 때, 동혁의 동생 동화가 악을 쓰며 폐방을 놓았지만, 동혁은 ‘진홍회란 무슨 행정기관도 사법기관도 아니고 그저 일종의 자치 기관 비슷하니까, 웬만한 일은 우리 손으로 다 할 수가 있단 말이다. 아릉든 강기천이 한 사람을 상대로 끝까지 다투는 동안에, 동네 일은 아무 것도 안되고, 그 애를 써서 지은 회판도 우리 맘대로 쓰지 못하니 실상은 우리의 손해지 뭐냐?’²⁷⁾고 타이르고, 동혁은 자기의 손발인 농우회 회원 열두 명을 전부 역원으로 하는 조선으로 서기가 되어 그 일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그는 동화가 말하듯 ‘물령 팔 죽이’ 아니라, ‘동네 사람이 다 모이는 집에 운동하는 범위를 넓혀서 한 번 큼직하게 활동을 해보려는 속셈으로,²⁸⁾ 진홍회와 바로 맞서지 않는 풍심을 가진 사람이다.

동혁의 이런 자발적 농민계몽관은 이 소설의 전개부에서 유명한 여류 농민지도자 白賢卿을 채영신의 소개로 만났을 때부터 이미 복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혁이 백현경의 초대로 그의 집에 갔을 때, 백 여사가 ‘우리의 살 길은 오직 농촌을 불드는데 있다’ ‘여러분과 같은 일꾼들의 어깨로 조선의 운명을 짊어져야 한다’고 열변을 늘어 놓자 ‘석양관에 선들바람이 빼웃 속으로 스며들 적에 베드나무의 매미 스르라미 소리가 피아노 유성기 소리보다 더 정답고 깨끗한 풍악소리로 들려야 하겠는데…… 어째 오늘 저녁엔 서양으로 유람이나 온 것 같은 걸요’²⁹⁾ 하면서 피아노와 유

26) 沈熏, 심훈전집 I, p.335.

27) 沈熏, 심훈전집 I, p.330.

28) 沈熏, 심훈전집 I, p.330.

29) 沈熏, 심훈전집 I, p.159.

성기와 실크 양말과 지분냄새를 풍기며 호화롭게 사는 백여사의 생활을 비꼰다.

그리고 여주인공 채영신 역시 자기자신 Y. W. C. A. 회원으로서 파견된 농촌 체험대원이면서도 서울 연합회에서 내려오는 회원은 '농촌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서울서 눈은 한껏 높은 <하이칼라>가 내려오면 보여줄만한 것도 없거니와 대접하기가 거북할 것 같다'는 일종의 혐오감을 느끼는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상록수」는 결코 일부논자의 평처럼 '역사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었던 당시의 사정 때문에 지식인들이 발언의 도구'로 택한 '성급한 감상주의'³⁰⁾가 아닌 실천적 행동주의의 민중운동을 문제삼은 작품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것도 不安全感의 팽배로 사기를 잃어가던 植民地民에게 밑으로부터 떨어오르는 신선한 열린의 낭만세계를 문제삼고 있다.

머리를 들면 황금 가루 같은 달빛이 쏟아져 내리고, 머리를 숙이면 그 달빛을 실은 물결이 천조각 만조각으로 부서지며 눈과 영혼을 함께 황홀케 한다. 다시금 머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르면, 풀솜 같은 구름 속으로 숨바꼭질을 하는 달 속에는 쿠쿠루한 방에서 의땀을 그리는 어머니의 눈물에 젖은 얼굴이 비치는 것 같고, 기다란 한숨과 함께 머리를 떨어뜨리면 닦아 놓은 거울같은 바다 위에 꿈에도 잊히지 못하는 고향 산천이 아련히 떠오른다.

영신은 백사장에 펼쳐 주저앉으며 눈을 꽂 갑았다. 이번에는 무형한 그 무엇이 젖가슴으로 치밀어 오른다.

(아이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제 마음을 의심도 해 보았다. 이제까지 참고 눌러왔던 청춘의 오뇌에 온몸이 사로잡히자 영신의 멀리는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한 마디는

(하나님, 제가 그이를 사랑해도 좋습니까?)³¹⁾

박동혁에 대한 누를걸 없는 애정으로 고민하는 채영신의 모습이다. 불개미와 같이 일을 하고, 이념의 화신처럼 보이던 채영신이 이처럼 이성에 대한 그리움으로 전율하는 인간적인 면모는 이 소설의 도처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운 문장과 함께 독자들을 낭만적 신선함 속으로 이끌어 간다. 이런 점은 당시의 도시가 위기의식으로 쌌여가자, 사회의 일각에서 안정된 농

30) 金治洙, 농촌소설론(農民文學論, 온누리社, 1983), p. 41.

31) 沈熏, 全集 I, p. 204.

민의 세계로 귀의하려는 의지가 지식인 사회에 일면 분위기를 가속화시키면서 당시의 독자들에게 아름답고 밝은 감동을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소설의 여자 주인공의 행장이 가난하고 뜻배운 민중들을 위해 정열을 불태우다 죽었고, 그러면서도 인간적 갈등과 애정으로 고민하다가 그것을 꿈으로 간직한 채 대단원을 내림으로써 독자들은 그 낭만적 사랑의 비극적 종말에 때로 당한다. 그와 함께 동혁의 좌절하지 않는 남성적 끗끗함에 낙관적 미래상을 발견하고, 현재의 어두움을 심리적으로 보장받는 효과를 주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 小說은 일견 낭만주의 문학의 한 모습을 띠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常綠樹」는 같은 前期 農民小說이면서도 「흙」이나 「故鄉」과는 달리 낭만적 티얼리즘의 文脈으로 주제를 형상화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가슴설레는 이상적인 러브스토리를 보여준다.

이런 점이 오늘날도 「常綠樹」가 많은 독자를 확보³²⁾하는 요소가 될지 모른다.

III. 結論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1930년대는 불안과 위기의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대이고, 文學에 있어서도 그런 불안과 위기의식이 민감하게 반영되던 시대이다.

小說의 경우 그런 사조는 크게 두 개의 문제로 나타난다. 첫째는 都市를 배경으로 한 知識人의 문제가 작품의 제재로 다루어지는 것이고, 둘째는 農村을 배경으로 한 작품군, 즉 農民小說의 등장이다.

본고는 지금까지 1930년대 소설의 한 특징이 되는 前期 農民小說(農民啓蒙小說)群 가운데 대표작의 하나라 할 만한 「常綠樹」를 중심으로 문학적 특징과 작가의식을 고찰해 보았다. 논의된 사항 중 다음 세 가지 점을 결론으로 추출할 수 있겠다.

첫째, 農民小說은 前期 農民小說과 後期 農民小說로 나뉘는데 前期 農

32) 中央日報 1983년 11월 16일 문화면 참조.

<'83 한국소설 1000편전>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 무엇이냐'는 양케이트 질문에 응답자 22,305 명 중 9천 7백 50 표(43.71%)가 「상록수」라고 대답하여 1위가 되었다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農民小說인 農民啓蒙小說은 러시아의 안도주의의 한 구체적인 사회운동이었던 나로드니키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보·나로드(B. Hapo A)운동(1931~1934)의 문학적 구현이었다.

둘째, 「常綠樹」가 농민의 계몽의식과 민중의식의 각성이란 주제를 효과적 구성으로 처리함으로써 1930년대 민중에게 밝고 열리는 上昇指向의 의식세계를 제시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따라서 「常綠樹」를 위시한 前期 農民小說은 '지식인의 귀농을 주제로 한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불안과 위기의 시대에 民族의 自活과 自強 문제를 바탕으로 한 未來指向的 浪漫性을 띤 民族文學으로 형상화 되었다.

셋째, 「常綠樹」는 <지식인의 귀농→농민계몽→살기 좋은 농촌건설>이란, 일견 理想性이 강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이런 주제가 시기적으로 日帝의 농촌진흥운동과 거의 같은 시기에 나타났다. 따라서 사실성이 약한 이상주의적 작품, '성급한 감상주의의 문학'으로 처리되거나 지식인들의 발언의 도피구로서 취해진 素材主義란 입장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작품 자체에 内包化(Connotation)된 의미나 주인공의 행동을 통해 규명된 결과는 理想的 주제가 寫實的 人間像 창조로 접근되었고, 단순한 농민계몽의 소재가 아니라, 밑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던(하향식 관계운동이 아닌) 농민 찰살기 운동이 종국엔 낭만적 격정으로 처리되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이 밝혀졌다.